

2023. 3. 20.(월)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3년 3월 2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서울공예박물관 교육홍보과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02-6450-7010
교육홍보과장	오문선	02-6450-7070
담 당 자	반태영	02-6450-7074
관련 누리집 (메뉴)	https://www.youtube.com/@SeMoCATV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4쪽

서울공예박물관 학예사와 온라인 전시투어 떠나요

- 서울공예박물관, 3월 20일 12시부터 온라인 전시 설명 시작
- 공식 인스타그램(@seoulmuseumofcraftart) 및 유튜브(@SeMoCATV) 채널 업로드
- 상설 전시를 기획한 학예사가 직접 설명하는 수준 높은 6편의 온라인 전시 설명
- 박물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에서 서울공예박물관의 공예를 속속들이 관람 가능
- 요약 영상은 사전 관람 자료로도 활용, 현장 방문 시 더욱 즐거운 관람으로 이어질 것 기대

- 서울공예박물관(관장 김수정)은 상설전시인 공예 역사 전시 <장인, 세상을 이롭게 하다>와 직물 공예 전시 <자수, 꽃이 피다>·<보자기, 일상을 감싸다>를 기획한 학예연구사가 직접 소개하고, 주요 작품과 전시물을 설명하는 전시 해설 영상 6편을 공개할 예정이다.
- ‘학예사와 떠나는 온라인 전시투어’는 3월 20일(월)부터 25일(토)까지 매일 12시에 공개된다. 서울공예박물관 유튜브(@SeMoCATV)에 전체 영상이 게시되고, 인스타그램(@seoulmuseumofcraftart)에는 요약 영상이 게시된다. 편당 10~15분 내외 길이로 서울공예박물관 상설 전시와 주요 유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6편의 영상 중 1~4편은 시대별로 구분한 ‘공예 역사 전시’ 투어로 강연경 학예연구사(1편, 2편), 고미경 학예연구사(3편, 4편)가 해설을 진행한다.

- 1편에서는 공예 역사 전시 첫 번째 테마인 <자연에서 공예로-장인(匠人), 공예의 전통을 만들다>로 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공예를 다룬다. 인간이 자연에서 광물, 흙, 나무, 전복과 같은 공예 소재를 발견하고, 기술을 숙련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 2편에서는 공예 역사 전시 두 번째 테마인 <장인, 세상을 이롭게 하다>로 조선시대의 공예를 다룬다. 조선시대 장인이 제작한 공예품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향유됐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조선 왕실에서부터 사대부, 일반 서민 계층까지 점차 공예 소비층이 확대되는 내용을 전시 기획 학예사의 설명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3편에서는 공예 역사 전시 세 번째 테마인 <공예, 근대의 문을 열다>로 대한제국 시기의 공예를 다룬다. 1876년 개항 이후 대한제국 시기에 사회 전반에 나타난 근대화의 흐름과 함께 전통 방식의 수공예는 쇠퇴하고 공예가 산업기술로 인식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 4편에서는 공예 역사 전시 네 번째 테마인 <공예, 시대를 비추다>로 일제강점기의 공예를 다룬다. 전통공예가 위축되고 공예품이 관광 상품으로서 주목받으면서 백화점이나 상점을 통해 유통되는 등 산업공예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한편 순수미술로서 공예의 지평이 열려 현대공예의 토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 5~6편은 자수와 보자기를 다루는 ‘직물 공예 전시’ 투어로 이승해 학예연구사가 해설을 진행한다.

- 5편에서 다루는 직물 공예 전시 <자수, 꽃이 피다>는 자수 병풍을 회화적 관점으로 재조명하고, 일상생활 구석구석을 수놓은 여인들의 마음을 담은 문양의 의미와 자수 기법을 소개한다.

- 6편에서 다루는 직물공예 전시 <보자기, 일상을 감싸다>는 예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돼 온 보자기를 소개하고, 우리의 일상 속 오래도록 함께했던 보자기의 다양한 모습과 쓰임을 살펴볼 수 있다.

- 서울공예박물관 김수정 관장은 “학예사와 떠나는 온라인 전시투어’로 현장 방문 시 더욱 즐거운 관람 경험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도 서울공예박물관의 공예를 속속들이 접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장 방문 시, 1~4편에서 다루는 공예 역사 전시는 서울공예박물관 전시1동 2층과 전시2동 2층에서 관람할 수 있다. 5~6편에서 다루는 직물 공예 전시는 전시3동 2~3층에서 관람할 수 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열려 있다.

붙임 1. 온라인 전시투어 영상 대표 이미지 9장. 끝.

〈붙임 1〉 온라인 전시투어 대표 이미지 9장

		
<p>1편과 2편의 강연경 학예연구사 전시 해설 영상 이미지</p>	<p>3편과 4편의 고미경 학예연구사 전시 해설 영상 이미지</p>	<p>5편과 6편의 이승해 학예연구사 전시 해설 영상 이미지</p>
 <p>자연에서 공예로 학예사와 떠나는 온라인 전시투어</p>	 <p>공예, 근대의 문을 열다 학예사와 떠나는 온라인 전시투어</p>	 <p>자수, 꽃이 피다 학예사와 떠나는 온라인 전시투어</p>
<p>1편 공예 역사 전시 〈자연에서 공예로〉</p>	<p>3편 공예 역사 전시 〈공예, 근대의 문을 열다〉</p>	<p>5편 직물 공예 전시 〈자수, 꽃이 피다〉</p>
 <p>장인, 세상을 이롭게 하다 학예사와 떠나는 온라인 전시투어</p>	 <p>공예, 시대를 비추다 학예사와 떠나는 온라인 전시투어</p>	 <p>보자기, 일상을 감싸다 학예사와 떠나는 온라인 전시투어</p>
<p>2편 공예 역사 전시 〈장인, 세상을 이롭게 하다〉</p>	<p>4편 공예 역사 전시 〈공예, 시대를 비추다〉</p>	<p>6편 직물 공예 전시 〈보자기, 일상을 감싸다〉</p>